



해인사 동형쌍불 신라목조 비로자나불이 모셔진 대비로전의 현판 제막식 모습. 사진제공=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 자비광명 비추소서

국내 最古 비로자나목불 모실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

대통령 내외 등 2000여명 참석...국운융창기원 지진·화재 대비 첨단 공법 사용 시공

될 대비로전(大毘盧殿)이 모습을 드러냈다. 11월 24일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열린 '대비로전 낙성법회'에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비로전 낙성을 축하하고 국운 융창과 평화통일, 국민대화를 기원했다.

"빛보다 앞서 빛나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여! 모든 불자와 국민들의 성원으로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법회를 준비하오니, 이로 인해 국운이 융창하고 민족이 통일되며 국민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서원 자비광명으로 섭수(攝受)하소서!"

천년의 세월을 견뎌 온 '해인사 동형쌍불 신라목조비로자나불'을 모시게 될 대비로전(大毘盧殿)이 모습을 드러냈다. 11월 24일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열린 '대비로전 낙성법회'에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비로전 낙성을 축하하고 국운 융창과 평화통일, 국민대화를 기원했다.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좌상'

해인사 비로자나목불좌상은 지난 2005년 6월 개금(금칠을 다시 하는 것)을 위한 복장유물 개봉 과정에서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의해 신라 883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最古) 목불좌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권인(오른손으로 왼손 들깨손가락을 감싼 형태)을 취하고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형태를 한 똑같은 모습의 불상 2구가 함께 전하고 있다.

두 불상은 그동안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따로 모셔져 있었고, 제작 연대가 확인되지 않아 경남도 문화재 제41호로만 지정됐다. 불상의 복장에서는 묵서명과 함께 15세기 당시 쓴 한글 육필 발원문 등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복장 유물을 낚는 용기인 후령통에서 나온 발원문은 14~15세기 복식인 흰 직령포(저고리) 위에 붉은 색 한길 글씨로 '복과 수명을 누리고 아미타불을 뵈어 부처가 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밖에도 조선 초기 불교 관련 문서, 수정사리호, 오방색 보자기, 만다라 도상 등 400여 점의 유물이 나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비로자나불의 인연

이날 대비로전 낙성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비로자나목불좌상의 '재발견' 당시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와 눈길을 끌었다. 내외는 목불좌상이 국내 최고(最古) 불상임이 밝혀진 직후인 지난 2005년 8월, 해인사를 방문해 비로자나목불좌상을 전경했다. 이어 노 대통령 내외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비로전을 지어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로자나불이 상징하는 '화합'의 의미를 담아 국민대화와 평화통일 발원 기원문을 작성해 불상 복장에 봉안하기도 했다.

낙성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비로전 낙성은 불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뜻 깊은 경사스러운 불사"라고 축하했다.

또한 "재입 기간 중 3번이나 해인사를 방문했는데, 이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낙성법회에 초청해 주신 스님들과 불교계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관 스님은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은 팔만대장경과 함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며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으로 대비로전을 낙성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대통령 인기가 끝나다라도 해인사에 더 자유롭게 오가는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대통령 내외는 이날 법전 스님, 지관 스님 등과 함께 현판 제막 후 대비로전에서 비로자나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이어 법전 스님의 헌향(獻香), 대통령 내외의 헌등(獻燈),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헌화(獻花) 등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화재 발생시 비상하강시스템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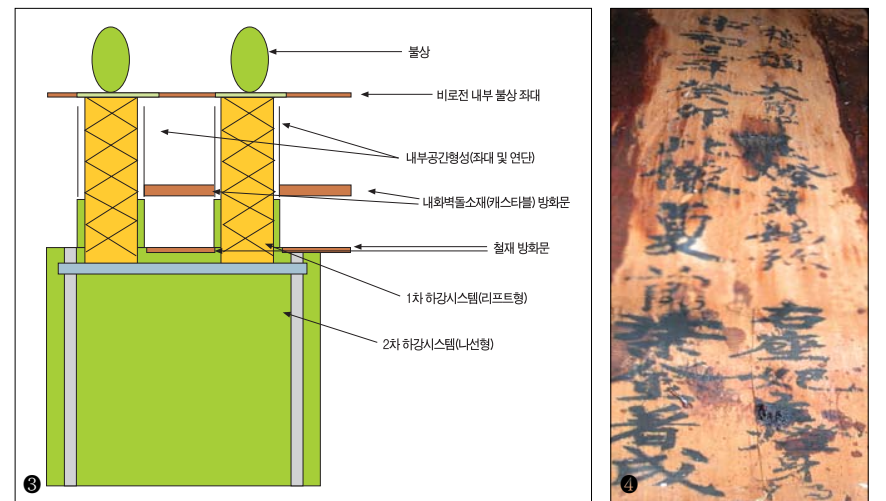
해인사 대비로전은 국보급 문화재인 비로자나목불좌상 2구를 모시는

곳인 만큼 지진이나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첨단 장비를 갖춘 '국보급 설비'를 자랑한다.

'비상 하강 시스템'은 화재에 대비한 열감지기와 지진발생을 알려주는 진동측정기 등을 통해 화재나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4분 만에 불상이 6m 아래 지하 별실로 이동하게 설계됐다. 또한, 동시에 방화벽이 차단됨으로써 불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뜨거운 열이나 연기, 중량에 견딜 수 있도록 지하 230m와 430m에 2중 차단 장치도 설치했다. 지하 6m 깊이에 만들어진 별실은 사방이 3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어 폭격 등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시공사측의 설명이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여러 불자와 국민들의 성원으로 불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비로자나부처님의 큰 광명으로 모든 대립과 분열이 극복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두 부처님을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천 해인사/글=유수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1. 해인사 비로자나부처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대비로전 낙성식에 참석했다.
- 2. 낙성법회 후 대비로전을 찾은 스님과 불자들이 비로자나부처님께 헌화하고 있다.
- 3. 대비로전 비상 하강 시스템.
- 4. 비로자나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중화 3년(883) 명문이 뚜렷한 묵서명.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풍 (완세유보상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아미타반 메를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전주 크기: 8mm × 10mm × 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항로 (대) 26 × 16 × 16cm 135-600원 → 할인가 125,000원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온열복대 의료기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시마청 의료기기 05-0626로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온열유체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속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지우 됩니다. **차기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일금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